



부부관계와 삶의 만족: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임진선¹ · 조희태²

¹우석대학교 · ²난양공과대학교

Marit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Leisure Satisfaction

Lim, Jin Sun¹ · Cho, Hee Tae²

¹Woosuk university · ²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In order to verify this relationship, 250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married adults through online survey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used to test hypotheses. Results showed that the marital relationship positively affected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Further, leisure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Th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the marital relationship for understanding leisur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marital relationship,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mediated effect

주요어 : 부부관계, 삶의 만족, 여가만족, 매개효과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NRF-2014S1A5B5A01016340).

Address reprint requests to: Cho, Heeta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 Nanyang Walk, Singapore 637616

Tel: (65) 6790-3693, E-mail: heetae.cho@nie.edu.sg

Received: February, 8, 2019 Revised: February, 28, 2019 Accepted: March, 15, 2019

I. 서론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되며 가족구성이 대단위 가족의 형태에서 소단위로 바뀌었다. 이러한 가족 형태 및 구성의 변화는 다양한 갈등을 발생시켰고(박세경, 2004),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증가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국가들 중 14위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OECD, 2018). 이러한 이혼율 증가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박세경(2004)은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신체적 및 정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문제 또한 발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Price와 McKenry(1998)의 연구에서는 이혼이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에서의 큰 사건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이러한 이혼의 현상들은 1인 가구의 등장에도 영향에도 영향을 미친다(아시아경제, 2018). 백승민과 김미지(2017)에 따르면, 최근 몇 해 전부터 1인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변화들이 나타났다. 즉, 부부 관계는 삶의 만족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부부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며(임현선, 박정윤, 2015)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김의진, 2014). 따라서 우리는 부부들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삶의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Seligman(2011)에 따르면, 관계(relationship)가 웰빙(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 즉, 부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은 그들의 건강한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간의 정서역량에 대한 요소가 좋을수

록 만족도 지각 간의 관계가 좋아지며(김혜주, 전종국, 2005), 부부간의 긍정적 관계가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서기영, 이희경, 2014). 더불어, Baucom, Epstein, Rankin과 Bumeet(1996)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삶의 만족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김진숙과 권석만(2009)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즉, 부부간의 가족관계에 대한 요소가 삶의 질이나 만족도 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는 여가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수용현상이 좋을수록 높은 여가만족을 보이며(서광봉, 이철원, 2011), 부부의 여가활동 선택 일치도 또한 부부관계와 관련 있다(임진선, 2017).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는 여가만족을 높여주는 주요 요인이며(신동주, 2013), 가족 간의 친밀감이 높을 경우, 여가활동에서 높은 만족을 느낀다(하현국, 전귀연, 1998; 이주연, 2009). 즉, 여가활동에 있어서 부부 및 가족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의 여가활동에 참여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남순현, 김미혜, 2014), 배우자간의 여가활동을 함께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서미숙, 성효용, 2017). 즉, 여가만족은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황선환, 김종호, 2016). 예를 들어, 도시거주 가정주부에 대하여 조사한 김성희와 강유원(2000)연구에 따르면 가정주부의 여가만족이 높을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연홍(2013)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관광여행과 문화예술 관람을 통해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만족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부의 관계는 여가 및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

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부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부 관계, 여가 만족, 그리고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 관계가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때 여가만족이 어떤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1과 같다.

H1: 부부 관계는 삶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부부 관계는 여가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여가 만족은 삶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여가 만족은 부부 관계와 삶 만족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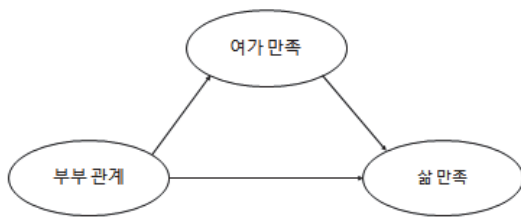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유목적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기혼자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google설문지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설문지는 이메일, 카톡,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7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3부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이 57.6%(140명), 여성이 42.4%(103명)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62.1%, n=151), 다음으로 40대(21.8%, n=53), 50대 이상(16.0%, n=39)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62.6%(n=1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자(27.6%, n=67), 고등학교 졸업자(9.9%, n=24).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인 27.6%(n=67),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5.8%(n=87), 500만원 이상이 36.6%(n=89)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인구 통계학적 변인

	구분	인원(명)	%
성별	남성	140	57.6
	여성	103	42.4
연령	30대 이하	151	62.1
	40대	53	21.8
	50대 이상	39	16.0
학력	고졸	24	9.9
	대졸	152	62.6
	대학원졸	67	27.6
월수입	300만원 미만	67	27.6
	300만원 ~ 500만원 미만	87	35.8
	500만원 이상	89	36.6

2. 연구도구

부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옥경(200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양옥경과 이민영(2003)이 기혼성인을 대상으로 이를 수정하였다. 이후, 양옥경과 김연수(2007)이 간명하게 수정한 축약형 가족관계 척도를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축약된 가족관계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두 가지 하위요인인 정서친밀(10문항)과 수용존중(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된다’,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우리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알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우리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다음으로, 여가만족척도는 Beard & Regheb (198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총 6개의 하위요인(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긴장이완만족, 신체적 만족, 심미적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요인은 4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김미량, 이연주, 황선환(2010)이 여가만족척도의 변안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여가만족을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사용된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나의 여가활동은 나에게 매우 흥미롭다’, ‘나의 여가활동은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 ‘나의 여가활동은 내 주변상황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나의 여가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의 여가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나의 여가활동은 긴장을 풀어준다’, ‘나의 여가활동은 신체적인 도전이다’, ‘나의 여가활동 참여 지역이나 장소는 쾌적하고 깨끗하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은 최초 Diener, Emmons, Larsen, and Friffin(1985)이 개발하고 김완석, 김진영(1997)이 변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임영진(2012)이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시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5문항으로 다음과 같

다.: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Anderson & Gerbing (1988)이 제안한 두 단계를 통하여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하여 모형 적합도 및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EQS 6.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본 연구에서는 S-B χ^2 (Satorra-Bentler's scaling method) 및 robust 방법을 사용하였고, 측정 모형의 적합도 절대적합지수 (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andardized Root Mean-Square Residual) 및 증분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Non-Normed Fit Index)를 이용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Hu & Bentler, 1999).

Ⅲ. 결과

1.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 신뢰도,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를 확인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적합도는 S-B $\chi^2(df)=550.36(293)$, RMSEA=.060, SRMR=.046,

NNFI=.950, CFI=.955로 기준치를 만족하는 모형적합치가 나타났다. 이 값은 Hu and Bentler(1999)가 제시한 적합도 지수의 기준에 수용할만한 값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 모형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요인의 개념 신뢰도(.919-.971)는 .7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이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2). 다음으로,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분산추출지수를 확인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모든 요인의 분산추출지수값(.709-.789)이 모두 .5이상을 보였기에 수렴타당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표 2). 마지막으로 변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최초 측정모형에 제약을 설정한

후, 제약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과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제약을 설정하지 않은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변별 타당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Kenny, 1979; Marsh & Hocevar, 1988).

2. 구조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S-B $\chi^2(df) = 550.50(294)$, RMSEA=.061, SRMR=.046, NNFI=.950, CFI=.955로 허용되는 적합치를 보였다.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가족관계는 삶의 만족(H1: $\beta = .717$, $SD = .088$, $z = 10.91$, $p < .001$)과 여가만족(H2: $\beta = .544$, $SD = .052$, $z = 8.38$, $p < .001$)과 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만족 또한 삶의 만족(H3: $\beta = .131$, $SD = .097$, $z = 2.26$,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H4: $\beta = .072$, $SD = .044$, $z = 2.20$, $p < .05$)(그림 2).

표 2. 측정모형 분석

문항	λ	Rho α	AVE
가족관계: 정서친밀			
정서친밀1	.861		
정서친밀2	.860		
정서친밀3	.834		
정서친밀4	.870		
정서친밀5	.851		
정서친밀6	.865		
정서친밀7	.921		
정서친밀8	.891		
정서친밀9	.907		
정서친밀10	.910		
가족관계: 수용준중			
수용준중1	.835		
수용준중2	.898		
수용준중3	.843		
수용준중4	.920		
수용준중5	.941		
여가만족			
심리적 만족	.885		
교육적 만족	.930		
사회적 만족	.853		
긴장이완	.854		
신체적 만족	.783		
심미적 만족	.734		
삶 만족			
삶 만족1	.912		
삶 만족2	.928		
삶 만족3	.925		
삶 만족4	.724		
삶 만족5	.649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가 여가만족과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부부의 관계가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때 여가만족이 어떤 매개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부관계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가족 간 정서적 친밀도와 수용준중의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Seligman(2011)에 따르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인들과의 관계적 요소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긍정적인 부부 관계가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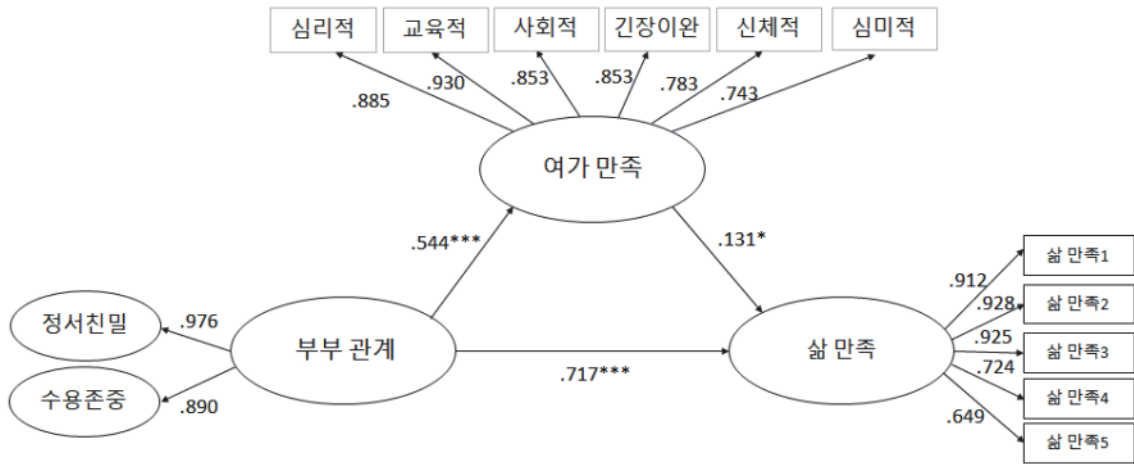


그림 2. 부부관계와 삶의 만족에 대한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의 만족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기존 연구들에서도 보였다. 예를 들어, 김혜주와 전종국(2005)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정서적 역량이 높을 경우가 부부 만족도가 높다고 나타났으며, 문선희(2014)연구에서는 중년부부들의 가족관계가 결혼만족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부부의 관계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관계를 개선 및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건강한 삶의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부 관계는 여가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높은 여가만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손지영(2018)은 정서적 지지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소가 여가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신동주(2013)는 가족관계, 만족과 스트레스지각에서 여가만족이 매개역할을 하였다. 특히 가족관계 만족이 여가만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여가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는 부부 관계가 여가만족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 언급하고 있는 정서적 친밀이나 수용과 존중에 대한 요인들이 여가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의 정서친밀이나 수용과 존중의 사항을 높이는 것이 여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의 관계에 대한 사항들이 긍정적일 경우 그 만큼 효율적으로 여가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정서 친밀 및 존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여가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본다.

셋째, 여가 만족은 삶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만족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많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졌다. 예를 들면,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마라톤 참가자, 한국과 중국 비교문화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에서 여가만족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중범, 2007; 남현주, 이현지, 2017; 이경찬, 김옥희, 2015; 이재풍, 이명희, 광종형, 2017; 임승현, 박상섭, 2018; 주완청, 박진경, 2013). 즉, 선행연구의 결과는 여가만족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 또한 여가활동 과몰입 상황에서도 삶의 만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진영 외3, 2009). 이는 여가활동에서의 만족감이 그 만큼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여가 만족은 부부 관계와 삶 만족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였으며,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관계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여가만족을 통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부의 관계가 삶의 만족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여가만족도 부부 관계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Baucom et al.(1996)에 따르면 부부 관계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불어, 부부 관계는 여가만족을 통해(이주연, 2009)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남순현, 김미혜, 2014). 이러한 결과는 높은 삶의 만족을 위하여 부부 관계 향상과 더불어 여가 만족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여가만족의 두 요인들을 상생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삶의 밸런스(WLB: work-life balance)를 바탕으로 부부 관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와 삶의 만족관계에서 여가만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부부관계, 여가만족과 삶의 만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연구목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네 가지의 가설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관계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이다. 즉, 부부간의 정서 친밀이나 수용과 존중이 개인의 삶의 만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기에 관계향상을 위하여 부부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부부 관계가 여가만족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이는 부부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여가만족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가만족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변수이며, 부부들의 여가만족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임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와 삶의 만족에서 여가 만족은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부부의 관계와 여가만족이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사항들을 차후 연구에서 적용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부부간의 현재 결혼형태, 부부의 직업적인 특성, 소득, 성별, 연령과 같은 요인들이 여가 및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의 형태 및 가족구성원의 조절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의 만족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이 부부의 관계, 여가 만족 및 삶의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면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양희(2016). 중년남성의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344-353.
- 김미량, 이연주, 황선환(2010). 여가만족 척도의 타

- 당도 검증과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435-445.
- 김진숙, 권석만 (2009). 부부 신념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459-473.
- 김혜주, 전종국 (2005). 부부의 정서역량과 부부 만족도 지각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6(2), 633-644.
- 남순현, 김미혜(2014).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34(1), 183-203.
- 백승민, 김민지(2017). 인권의 측면에서 본 1인 가구 담론분석. *사회과학연구*, 28(4), 217-241.
- 서기영, 이희경(2014). 희생의 동기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3), 1299-1318.
- 서미숙, 성효용(2017). 배우자 간의 시간 공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경제학회지*, 14(1), 103-125.
- 손지영(2018). 여가스포츠활동 참여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감 및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19-331.
- 양옥경(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8, 117-145.
- 양옥경, 김연수(2007). 축양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 103-129.
- 양옥경, 이민영(2003). 가족관계척도 활용을 위한 타당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5-33.
- 이재완, 강혜진(2018). 워라벨과 삶의 만족. *지방정부연구*, 22(3), 267-291.
- 이주연(2009). 가족기능과 여가제약 및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6(3), 135-156.
- 임현선, 박정윤(2015). 결혼초기 부부의 부부관계 신념 지각과 적용이 배우자의 긍정적행동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 23(1), 135-156.
- 정연홍(2013). 여가활동 참여 장애인의 여가만족과 생활만족간의 관계. *동북아관광연구*, 9(1), 215-233.
- 하현국, 전귀연(1998). 가족기능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0(1), 193-21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ucom, D. H., Epstein, N., Rankin, L. A., & Burnett, C. K. (1996). Assessing relationship standards: The Inventory of Specific Relationship Standar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72-88.
- Beard, J. G.,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nny, D. A. (1979). *Correlation and causality*. New York: Wiley.
- Marsh, H. W., & Hocevar, D. (1983). Confirmatory factor-analysis of multitrait-multimethod matrice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20, 231-248.
- Price, S.J., McKenry, P.C.(1998). *Divorce*. Sage; Beverly Hills, CA.